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학교생활 적응 간의 관계성 연구

이미순¹ · 문재우¹ · 박재산²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¹, 한국보건산업진흥원²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Level and School Life Adjustment

Mi Soon Lee¹ · Jae Woo Moon¹ · Jae San Park²

¹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²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and school life adjustment. Data were collected by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t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ocated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s.

Methods: The response rate is 94.8% (474 cases). The internet addiction was measured by K Scale. The various methods of analysis were used, for example, frequency analysis,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irst, the mean score of internet addiction level is 2.07 in 5 Likert scale. the internet addiction level of the male students are higher than female students ($p < .05$). Second, as a result of classification of internet addiction groups by K Scale, 11 students (2.3%) are included in high risk group, 27 students (5.7%) are in potential risk group, 436 students (92.0%) are in general group. Third, the level of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very high. The difference of social support by internet addiction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difference of self-efficacy by internet addiction group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evel of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in general groups are more higher than in high risk group and in potential risk group ($p < .01$). Fourth, the difference of school adjustment by internet addiction groups was very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evel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the students in general groups are more higher than in high risk group and in potential risk group ($p < .01$). Fifth, the internet addiction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And the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chool life adjustment ($p < .01$). Finally,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ternet addiction affects negatively on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support of teacher among three types of them affects positively on the school life adjustment. And the social self-efficacy among two types of them affects positively on the school adjustment ($p < .01$).

Conclusion: to adjust desirably the school environment of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ptimal and efficient management of internet addiction was needed in the future and the improvement and promotion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self-efficacy of the students was also demanded.

Key Word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ternet addiction, Social support, Self-efficacy, School life adjustment

Corresponding author: Jae Woo Moon, School of Social Welfare, Hansei University, 604-5 Dangjung-dong, Gunpo 435-742, Korea.
Tel: 82-31-450-5248, Fax: 82-31-450-5248, E-mail: moon1229@hansei.ac.kr

- 본 논문은 제1저자 이미순의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2010년 2월 11일 접수, 2010년 6월 10일 채택

서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자 인류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 인터넷이며 최근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한 현상 역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의 보급이 아닐까한다. 2009년 9월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3,658만명)가 주 평균 13.9시간, 하루 평균 1.97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이제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어서(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청소년과 인터넷은 이제 삶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으로 청소년의 생활 패턴이 바뀌고 있고 또한 게임중독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은 100% 정신질환 등 일상생활 장애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의 지나친 인터넷 게임 몰입은 요통, 위장장애 등 신체적 영향은 물론 신경행동발달장애(ADHD), 정신분열성 성격장애, 사회공포증 등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의 하루 게임 이용시간은 주중 3시간19분, 주말 6시간15분, 최대 23시간46분으로 나타나 공부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즉 게임중독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업성취도가 떨어져 가족과의 관계도 나빠져 인격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헤럴드경제, 2010.2.9).

다행스럽게 이제는 일 년에 한 차례씩 초 · 중 · 고학생을 상대로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사용자’로 분류된 청소년은 전국 153개 정신보건센터와 159개 협력병원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잠재위험군 사용자’는 시 · 군 · 구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국민일보, 2009. 6.17).

이처럼 청소년 인터넷 중독은 범국가적, 범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청소년은 아직 성장 발달 과정 중에 있으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사회의 주역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한 부작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실태 파악과 문제해결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인터넷에 몰입해 있는 청소년의 사회 · 심리적 요인과 정서는 학교생활 적응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또한 학교 성적 역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통

한 대책마련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 ·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수준을 파악하고 인터넷 중독이 이들의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중독과 학교 생활적응간의 관련성여부를 분석하여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100명을 사전 조사하여 설문문항을 검토하였으며,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 · 고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2009년 6~7월 2개월 동안 설문조사 하였다. 표본추출은 사회경제적 환경특성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서울 강남 · 강북지역, 수도권 군포시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임의추출방식(random sampling)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담임선생님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500명 설문 대상자 중 474명에 대한 설문이 회수되어(회수율 94.8%) 이를 대상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사전 조사에 사용된 설문문항에는 사회성(sociality)을 묻는 질문 32문항을 포함한 총 141문항이었으나, 사전 조사 실시 후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확인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과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변수별로 내적일치도를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는 사회성과 관련한 질문문항은 삭제하고 총 107문항으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볼 때 학생들의 집중도가 요구되는 까닭에 담임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설문하였다. 남녀 간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많은 수가 남학생(70.7%)으로 편중되었던 점과 학년의 분포가 고루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된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남학생이 335명(70.7%), 여학생이 139명(29.3%)이었으며, 중학생이 131명(27.6%), 고등학생이 343명(72.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강남지역이 204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북지역 99명(20.9%), 군포시 92명(19.4%), 수도권 기타지역 79명(1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성적은 ‘보통이다’가 208명(4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형편 역시 ‘보통이다’가 342명(72.2%)으로 가장 많았다. 학생

들의 한 달 용돈을 보면 2만원 이하가 193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의 대화는 30분 이하가 158명(33.3%)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분류	n (%)
성별	남자	335 (70.7)
	여자	139 (29.3)
학년	중1	105 (22.2)
	중2~중3	26 (5.5)
	고1	239 (50.4)
	고2~고3	104 (21.9)
지역	서울 강남지역	204 (43.0)
	서울 강북지역	99 (20.9)
	군포시	92 (19.4)
	수도권 기타	79 (16.7)
학생성적	매우 못한다	33 (7.0)
	못한다	127 (26.8)
	보통이다	208 (43.9)
	잘 한다	64 (13.5)
	매우 잘한다	41 (8.6)
가정형편	매우 가난하다	13 (2.7)
	가난하다	35 (7.4)
	보통이다	342 (72.2)
	잘 산다.	62 (13.1)
	매우 잘 산다	22 (4.6)
한 달 용돈	2만원 이하	193 (40.7)
	3~5만원	167 (35.2)
	6~8만원	50 (10.5)
	9~11만원	33 (7.0)
	12만원 이상	25 (5.3)
형제수	1명	168 (35.4)
	2명	245 (51.7)
	3명 이상	59 (12.4)
부모대화	30분 이하	158 (33.3)
	31~60분	127 (26.8)
	61~120분	88 (18.6)
	120분 이상	74 (15.6)
부모태도	무조건 야단치신다	29 (6.1)
	하지말라고 말씀하신다	158 (33.3)
	게임시간을 정해주신다	146 (30.8)
	간섭하지 않으신다	127 (26.8)
합계		474 (100.0)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8개 문항,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40문항, 학교생활 적응 30문항, 정서 29문항 등 크게 4개 영역 10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2).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문항으로는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중독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2년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한국의 상황에 적합한 자가진단 검사도구인 ‘한국형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척도’(K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2> 설문항목 및 하위 영역

구분	항목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K척도, 40문항)	· 일상생활장애 · 현실구분장애 · 긍정적 기대 · 금단 ·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 일탈행동 · 내성
학교생활 적응 (30문항)	· 교사, 학교행정, 학교환경, 학업, 친구
정서에 대한 질문 (29문항)	· 사회적 지지 - 친구, 가족, 교사 · 자기 효능감 - 성취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인구사회학적 특성 (8문항)	· 성별, 학년, 성적, 경제수준, 대화시간, 용돈, 형제수, 부모태도

3. 자료분석

자료처리는 SPSS/WIN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를 먼저 살펴보고, 특성변수별 인터넷 중독 정도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 인터넷 중독을 포함한 관련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산출과 함께 측정된 각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이론변수(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

하여 각 이론변수들에 대한 측정변수들의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K 척도의 총점을 산출하여 고위험사용자군,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였다.
-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인터넷 중독 유형군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그리고 학교생활적응(school life adjustment)에 차이가 있는지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하였다.
- 관련변수(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교 생활적응)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선행변수들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4. 설문문항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분석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각 이론변수들에 대한 측정변

수들의 Cronbach's α 값을 구하여 내적 일치도를 평가하였다. 설문문항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K척도에 의한 인터넷 중독의 하위 구성차원별 기술통계량을 보면 '내성'의 평균이 5점 만점에 2.320점으로 가장 높았고, '현실구분장애'의 평균이 1.435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2.079점으로 나타났다. 7가지 인터넷 중독의 하위 구성차원에 대한 Cronbach's $\alpha = .8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신뢰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차원별 기술통계량을 보면 '가족지지'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6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친구지지'의 평균이 3.535점, '교사지지'의 평균이 3.001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평균이 3.381점으로 나타났다. 3가지 사회적 지지의 하위 구성차원에 대한 Cronbach's $\alpha = .80$ 이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의 하위 구성차원별 기술통계량을 보면 '성취 효능감'의 평균이 5점 만점에 3.093점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효능감'의 평균이 3.335점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성취효능감의 신뢰도 값이 .854, 사

<표 3> 설문항목의 기술통계량 및 신뢰도

구분	분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인터넷 중독	일상생활장애	2.248	0.815	.887
	현실구분장애	1.435	0.699	.838
	긍정적 기대	2.299	0.867	.879
	금단	1.951	0.779	.855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성	1.955	0.846	.847
	일탈행동	1.957	0.749	.799
	내성	2.320	0.965	.869
	합계	2.079	0.649	.955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3.535	0.849	.918
	가족지지	3.682	1.002	.940
	교사지지	3.001	0.756	.836
	합계	3.381	0.690	.916
자기효능감	성취 효능감	3.093	0.710	.854
	사회적 효능감	3.335	0.724	.785
	합계	3.186	0.614	.846
학교생활적응	교사와의 관계	2.916	0.674	.764
	학교행정에 대한 태도	2.949	0.694	.778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2.727	0.614	.763
	학업관계	3.136	0.598	.809
	교우관계	3.862	0.583	.713
	합계	3.108	0.441	.804

회적 효능감의 신뢰도 값이 .785, 자기효능감 전체적으로는 .846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의 5가지 하위 구성차원별 기술통계량을 보면 ‘교우관계’의 평균이 3.8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의 평균이 2.7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신뢰도를 검정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804의 신뢰도를 보였다.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 차이

표 4는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평균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성별, 부모태도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의 경우 Scheffé 사후 검정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의 경우 여학생(평균 2.14) 보다는 남학생(평균 1.93)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태도에 있어서는 무조건 야단치신다(2.54)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간섭하지 않으신다(1.99)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05$). 부모의 태도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지만,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두 변수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았다.

인터넷 중독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K 척도의 총점을 산출하여 고위험사용자군(108점 이상), 잠재적 위험사용자군(95~107점), 일반사용자군(94점 이하)으로 분류한 결과 총 474명 중에서 일반사용자군이 436명(92.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27명(5.7%), 고위험 사용자군이 11명(2.3%)로 나타났다(표 5).

2. 인터넷 중독 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정도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독 유형별 사회적 지지 정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표 6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이 잠재

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5$).

3가지 하위 구성차원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친구지지의 경우 일반 사용자 군이 다른 두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지지 또한 일반 사용자 군이 다른 두 집단 보다 평균값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교사지지에 있어서는 잠재적 위험사용자군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5$).

3. 인터넷 중독 유형별 자기효능감의 정도

표 7에서 인터넷 중독 유형별 자기효능감 정도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의 자기효능감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성취효능감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이 고위험사용자군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사회적 효능감에 있어서도 일반사용자군의 평균값이 3.377점으로 고위험사용자군의 평균 2.896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4. 인터넷 중독 유형별 학교생활적응 정도

표 8에서 인터넷 중독 유형별 학교생활적응 정도의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의 학교생활적응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1$).

교사와의 관계, 학업관계, 교우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사용자군의 학교생활적응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5$). 반면에 학교행정과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의 평균값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 중독의 차이

(N=474)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성별	남자	335	2,139	0,627	3,159	.002
	여자	139	1,934	0,679		
학년	중1	105	2,043	0,695	1,263	.286
	중2~중3	26	1,958	0,915		
	고1	239	2,065	0,574		
	고2~고3	104	2,178	0,681		
지역	서울 강남지역	204	2,099	0,636	1,313	.269
	서울 강북지역	99	2,162	0,691		
	군포시	92	2,020	0,548		
	수도권 기타	79	1,994	0,725		
학생성적	매우 못한다	33	2,360	0,951	2,168	.072
	못한다	127	2,023	0,573		
	보통이다	208	2,105	0,621		
	잘 한다	64	2,008	0,643		
	매우 잘 한다	41	2,017	0,692		
가정형편	매우 가난하다	13	1,876	0,620	0,819	.513
	가난하다	35	1,980	0,586		
	보통이다	342	2,089	0,648		
	잘 산다	62	2,070	0,576		
	매우 잘 산다	22	2,224	0,930		
한달용돈	2만원 이하	193	2,035	0,684	2,022	.090
	3~5만원	167	2,097	0,587		
	6~8만원	50	2,023	0,533		
	9~11만원	33	2,064	0,619		
	12만원 이상	25	2,414	0,943		
형제수	1명	168	2,075	0,660	0,844	.431
	2명	245	2,056	0,617		
	3명 이상	59	2,179	0,752		
부모대화	30분 이하	158	2,134	0,648	2,570	.054
	31~60분	127	2,115	0,673		
	61~120분	88	2,021	0,604		
	120분 이상	74	1,901	0,642		
부모태도	무조건 야단치신다	29	2,538	0,916	7,595	.000
	하지말라고 말씀하신다	158	2,172	0,631		
	게임시간을 정해주신다	146	2,003	0,590		
	간섭하지 않으신다	127	1,997	0,600		

<표 5> K 척도에 의한 인터넷 중독 유형별 분류

구분	분류	n	%	평균	표준편차
인터넷 중독 유형	일반사용자군	436	92.0	1.965	0.525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5.7	3.143	0.138
	고위험사용자군	11	2.3	3.998	0.452
합계		474	100.0	2.079	0.649

<표 6> 인터넷 중독 유형별 사회적 지지의 정도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F	p
친구지지	일반사용자군	434	3.551	0.863	1.234	.292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3.430	0.688		
	고위험사용자군	11	3.182	0.547		
가족지지	일반사용자군	434	3.699	1.008	0.906	.405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3.437	0.879		
	고위험사용자군	11	3.600	1.055		
교사지지	일반사용자군	434	3.006	0.763	0.598	.55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3.031	0.686		
	고위험사용자군	11	2.758	0.668		
합계	일반사용자군	434	3.393	0.704	0.939	.392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3.282	0.530		
	고위험사용자군	11	3.153	0.418		

<표 7> 인터넷 중독 유형별 자기효능감의 정도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F	p
성취 효능감	일반사용자군	434	3.114	0.716	3.165	.043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935	0.520		
	고위험사용자군	11	2.636	0.715		
사회적 효능감	일반사용자군	434	3.377	0.714	9.206	.00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896	0.662		
	고위험사용자군	11	2.782	0.724		
합계	일반사용자군	434	3.215	0.614	6.724	.001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920	0.496		
	고위험사용자군	11	2.692	0.544		

<표 8> 인터넷 중독 유형별 학교생활적응 정도

구분	분류	n	평균	표준편차	F	p
교사와의 관계	일반사용자군	435	2,939	0,670	3,640	.027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704	0,728		
	고위험사용자군	11	2,509	0,509		
학교행정에 대한 태도	일반사용자군	435	2,964	0,694	1,310	.271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822	0,638		
	고위험사용자군	11	2,691	0,812		
학교환경에 대한 태도	일반사용자군	435	2,728	0,616	0,334	.716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765	0,578		
	고위험사용자군	11	2,588	0,692		
학업관계	일반사용자군	435	3,169	0,594	8,826	.00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810	0,500		
	고위험사용자군	11	2,636	0,540		
교우관계	일반사용자군	435	3,902	0,567	14,175	.00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3,496	0,572		
	고위험사용자군	11	3,200	0,566		
합계	일반사용자군	435	3,131	0,436	8,295	.000
	잠재적 위험사용자군	27	2,900	0,390		
	고위험사용자군	11	2,710	0,450		

5.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적응 간 관련성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자기효능감(성취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그리고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을 중심으로 상관분석을 한 결과를 표 9에서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지지로서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으로서 성취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부(-)의 관계를 보였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과 인터넷 중독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와 자기효능감(성취효능감, 사회적 효능감)간에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학교생활적응간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는 교사지지($r=0.45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지지($r=.326$)로 나타났다($p<.01$).

6.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자기효능감(성취효능감, 사회적 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우선 1단계에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더미화하여 보정한 후 인터넷 중독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중독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beta=-.270$)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01$). 통제변수에서는 지역, 학교성적, 한 달 용돈, 부모대화, 부모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8.1%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인터넷 중독과 사회적 지지(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beta=-.221$)이 통계적으로

<표 9>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 간 관련성

구분	인터넷 중독	친구지지	가족지지	교사지지	성취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학교생활적응
인터넷 중독	1.000						
친구지지	-0.165**	1.000					
가족지지	-0.098*	0.583**	1.000				
교사지지	-0.093*	0.370**	0.414**	1.000			
성취효능감	-0.196**	0.459**	0.403**	0.331**	1.000		
사회적 효능감	-0.234**	0.500**	0.300**	0.218**	0.450**	1.000	
학교생활적응	-0.314**	0.324**	0.326**	0.457**	0.314**	0.296**	1.000

* $p < .05$, ** $p < .01$.

<표 10> 인터넷 중독,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수	Model 1 (종속변수=학교생활적응)		Model 2 (종속변수=학교생활적응)		Model 3 (종속변수=학교생활적응)		
	PE	SE	PE	SE	PE	SE	
(상수)	3.028	0.133	2.152	0.151	1.979	0.160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	0.058	0.049	0.041	0.044	0.028	0.044
	학년	0.069	0.053	0.133**	0.048	0.138**	0.047
	지역	0.128**	0.043	0.108**	0.038	0.104*	0.037
	학교성적	0.160**	0.020	0.173**	0.018	0.167**	0.018
	가정형편	0.081	0.029	0.034	0.026	0.027	0.026
	한달용돈	-0.095*	0.018	-0.067	0.016	-0.076	0.016
	형제수	-0.074	0.041	-0.082*	0.036	-0.079*	0.036
	부모대화 부모태도	0.129** -0.095*	0.019 0.082	-0.011 -0.060	0.018 0.073	-0.017 -0.066	0.018 0.073
인터넷 중독	-0.270**	0.031	-0.221**	0.028	-0.193**	0.029	
사회적 지지	친구지지	-	-	0.098	0.027	0.031	0.029
	가족지지	-	-	0.090	0.023	0.079	0.023
	교사지지	-	-	0.364**	0.027	0.364**	0.027
자기 효능감	성취 효능감	-	-	-	-	0.029	0.031
	사회적 효능감	-	-	-	-	0.132**	0.029
Overall F		9.230**		18.320**		16.791**	
R ²		.181		.365		.379	
Adjusted R ²		.161		.345		.356	

PE=parameter estimate; SE=standard error.

* $p < .05$, ** $p < .01$.

유의하였고($p < .01$),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수 중 교사지지($\beta = .364$)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p < .01$). 통제변수에서는 학년, 지역, 학교성적, 형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6.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수를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beta = -.193$)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beta = .364$)와 사회적 효능감($\beta = .132$)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1$). 통제변수에서는 학년, 지역, 학교성적, 형제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최종적인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7.9%로 나타났다.

고 찰

인터넷 보급과 활용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지 오래되었다. 특히 심리적 유예 상태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문제는 사회적,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 중독의 고위험군은 2.3%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7)의 2.3%와 같은 결과였으며, 홍상우(2009)의 3.4% 보다는 낮았다.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부모태도와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결과 부모가 무조건 야단친 경우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경우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p < .05$).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짧을수록 인터넷 중독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통제와 간섭이 인터넷 중독을 억제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박영순, 2002). 결국 부모의 간섭과 통제는 인터넷 사용시간과는 연관성이 있지만 인터넷 중독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김선우, 2002).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청소년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김종원 외, 2002; 김혜원, 2001; 류진아, 2004; 신수정, 2007; 오현화, 2002; 윤영민, 2000; 이시형 외, 2000)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부모태도와 가정에서의 즐거운 대화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인터넷 중독이 사회성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연구(김광웅 외, 2004; 유지현, 2003; 윤재희, 1999; Griffith, 1999; Young, 1996)도 있는 반면, 인터넷 사

용이 대인관계 기술을 증가시켜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어 오히려 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연구(김주노, 2000; 서주현, 2001)도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청소년들은 주위의 사람들 특히 부모, 교사, 친구들과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감소되거나 철회되어 우울, 외로움, 불안의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된다. 이처럼 주위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청소년은 더욱 인터넷에 빠져들게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 역시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p < .05$). 이러한 연구결과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자들에게서 사회적 지지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다는 Young(1997)의 연구와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라 사회적 지지 전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손정순(2008)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인터넷 중독의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혼돈하게 함으로써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영향을 준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은 중독위험자집단일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청택 외, 2002; 우정연, 2007).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의 자기효능감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이 낮았다($p < .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박덕호(2003)의 연구결과에서도 역시 부적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박은경(200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이 자신감, 학습의 효능감, 관계형성 효능감에는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부정적 자기효능감을 형성시켜 도전적 과제를 피하게 만들고 자기조절 능력과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수업에 대한 흥미상실, 학업성취 동기 부족, 학업시간부족 등 많은 문제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이 반드시 인생이나 사회생활의 실패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인터넷 중독의 장기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낮았으며($p < .01$), 교사와의 관계, 학업관계, 교우관계 역시 일반

사용자군의 학교생활적응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학업동기, 학습분위기, 친구 및 대인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독성이 있는 학생은 일반 학생 보다 차이가 있으며(배철희, 2002), 인터넷 중독은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유병혁, 2008).

결국 인터넷 중독 청소년은 학교생활과 학업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이석범 외, 2001). 따라서 이들은 친구와 교사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고 수업시간과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며(남궁일, 2007; 우정연, 2007) 학교규칙에도 잘 순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김재준, 200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상대로 인터넷 중독 수준과 사회적 지지, 자기효능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녕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문제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474건(94.8%)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평균 2.14)보다는 남학생(평균 1.93)의 인터넷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의 경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모대화, 부모태도에 있어서 하루 60~120분 대화하는 그룹과, 게임시간을 정해주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기는 그룹의 중독성이 덜 하였다.

둘째,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은 일반사용자군이 436명(92.0%),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27명(5.7%), 고위험 사용자군이 11명(2.3%)로 조사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이 잠재적 위험사용자군과 고위험사용자군보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넷째,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 고위험사용자군으로 갈수록 자기효능감의 평균값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취효능감의 경우 일반사용자군이 고위험사용자군에 비해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다섯째, 인터넷 중독 일반사용자군의 학교생활적응 평균값이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중독이 심할수록 즉 고위험사

용자 군으로 갈수록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인터넷 중독 일반 사용자군의 경우, 교사관계, 학업관계, 교우관계에서 고위험 사용자군보다 학교생활적응의 평균값이 높았으며, 학교환경과 학교행정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인터넷 중독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 중독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 역시 장기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일시적 논의로 그쳐서는 안되며 중·고등학생들이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소년상담소나 학교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하고,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학교 안에 많이 양성 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범국가적 관심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의지가 요구된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이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문제는 학교보건의 영역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지역 등 비례층화추출방식(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에 의해 보다 정교하게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결과에 대해 전체집단으로 확대 해석 및 일반화(generalization)하는데 한계점이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김광웅, 유미숙, 조유진 (2004). 부모권력구조에 대한 아동기 경험이 여대생의 성역할 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3(1), 313~342.
- 김선우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재준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학습동기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익산.
- 김종원, 조옥귀 (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게임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32~36.
- 김주노 (2000). *인터넷 사용시간과 대인관계 심리변화*.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춘천.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 (2002).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연구*. 정보통신일반정책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김혜원 (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 **청소년학 연구**, 8(2), 91~117.
- 남궁일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가정 · 학교적용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 류진아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박영순 (2002).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배철희 (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서주현 (2001). **청소년의 인터넷을 통한 친구관계의 기능, 구조적 특성 및 만족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손준순 (2008).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사회적 지지 및 자기통제력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신수정 (2007). **실업계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과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인터넷 사용동기 및 문제행동**.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 오현화 (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춘천.
- 우정연 (2007).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인관계문제 및 학교적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유병혁 (2008). **고등학생의 인터넷 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유지현 (2003).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대인관계 성향의 차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윤영민 (2000). **인터넷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2차 포럼.
- 윤재희 (1999). **인터넷 중독과 우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및 대인관계의 연관성**.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석범, 이경규, 백기청, 김현우, 신수경 (2001). **중 · 고교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과 불안, 우울, 자기효능감의 연관성**. **신경정신의학**, 40(6), 1174~1184
- 이시형, 이세용, 김은정, 오성근 (2000).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연구보고서 제2000-1호.
- 정보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2008년 상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9). 2009년 인터넷이용 중독실태조사.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7). 2007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홍상우 (2009).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예방대책**.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전.
- Griffiths, M. (1999). Internet addiction: Fact or fiction. *Psychologist*, 12, 246-250.
- Young, K. S. (1996). *What makes the internet addictive: Potential explanations for pathological internet use*. Paper presented at the 105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Young, K. S. (1997).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